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HOPE AND OTHER PUNCHLINES

가제 : 호프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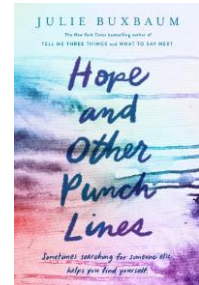
저자 : Julie Buxbaum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문학



\*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판권 계약

\*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자아내고, 비극이 있어도 삶은 계속됨을 보여주는 다” - 「Bulletin」

\* “탄탄한 스토리와 생생한 인물들이 마음을 뒤흔드는 감정을 일으킨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 - 「북리스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순식간에 무너진 테러로 주민들 중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은 뉴욕 시 외곽의 오크데일이라는 지역이었다. 그곳 사람들 대다수가 가족이나 이웃, 친구, 동료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잃고 2001년 9월과 10월에 걸쳐 장례식에만 수십 번을 참석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있다. 그런데 오크데일 주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또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 바로 ‘아기 호프’다. 테러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 무너진 빌딩에 있던 놀이방에서 종이로 만든 왕관을 쓰고 태어나 두 번째로 맞이한 생일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축하하고 있었던 꼬마 소녀는 어느 용감한 여성의 두 팔에 안겨 기적적으로 구출됐고, 시커먼 먼지와 울음소리, 혼돈이 가득한 사고 현장에서 그 차림 그대로, 빨간 풍선을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마침 근처에 있던 AP 통신 기자의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희망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아직 무너지고 있는 초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서 있는 사진은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크데일에 사는 애비 호프 골드스타인의 엄마와 아빠도 먼지 더미가 된 그 건물 107층에서 일했고 90층 이상에 있던 사람들은 마침 그 시각 한 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건물과 함께 먼지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기 호프는 희망을 넘어 기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오크데일의 웬만한 음식점과 카페에는 전부 아기 호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애비는 자라는 내내 어딜 가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거나 눈물을 터뜨리고 심지어 가까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끌어안고 오염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머릿속으로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애비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너무 컸다. 무

엇보다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날, 애비는 겨우 두 살이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통한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애비의 삶이 희망이나 기적으로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그 날 자신을 안고 함께 탈출한 은인 덕분에 열여섯 살이 넘도록 살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부모님은 이혼했고 애비는 주변 사람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예민하고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 ‘9/11 증후군’으로 통칭되는 병이 찾아온 것 같은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로 인해 공기를 뒤덮은 어마어마한 유독 물질을 흡입했고 생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에 걸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기침이 나더니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자, 애비는 자신도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부모님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밝히기 전, 애비는 그 빌어먹을 테러나 ‘아기 호프’의 족쇄에서 벗어나 그냥 애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애비는 17세 생일을 앞둔 여름 방학에 오크데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유아 캠프 교사로 일하기로 한다. 하지만 아기 호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으리란 기대로 떠난 그곳에서 애비는 첫날 자신을 바로 알아보는 소년을 만난다. 심지어 같은 오크데일 주민인 노아였다.

노아 역시 9/11 테러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은 무수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사고로 아빠가 사라지고 자신과 엄마만 남았기 때문이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술을 먹거나 약을 삼키는 사람들처럼 노아는 코미디에 심취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꿈꾸며 뚱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터지도록 만드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는 노아에게는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한 또 다른 꿈이 있다. 모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아빠가 어쩌면 어딘가에 멀쩡히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는 노아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붙들고 사라진 아빠를 찾고 있었다. 그 단서는 바로 ‘아기 호프’ 사진이었다. 모두가 빨간 풍선을 든 소녀를 볼 때, 노아의 눈에는 그 뒤에 함께 찍힌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아빠도 찾을 수 있다. 봉사 활동을 하려고 지원한 여름 캠프에 애비 호프가 나타난 것을 본 순간 노아는 하늘이 돕는 기분이었다. 9/11의 고통을 견디며 살았을 사진 속 사람들과 직접 만날 때 훌쩍 자란 아기 호프가 함께 한다면, 그 날의 상황을 묻고 이야기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노아는 아빠를 찾아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숨긴 채 애비에게 인터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애비는 자신을 평생 괴롭힌 그 사진 속 또 다른 생존자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애비와 노아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된다. 각자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두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 상실과 회복의 고통을 아름답게 그린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줄리 벅스바움(Julie Buxbaum)은 YA 데뷔작 『Tell Me Three Things』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 세계 18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큰 화제를 모은 소설가다. 25개 언어로 번역된 소설 『The Opposite of Love』, 『After You』도 평단의 호평을 받고 25개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CLAN  
가제 : 부족 생활  
저자 : Sigmund Brouwer  
출판사: Tundra Books  
발행일: 2020년 봄  
분량 : 약 200 페이지  
장르 : 모험



**\* 캐나다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1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미 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어드벤처 소설**

광활한 북미 대륙에서 사냥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원시인들과 주어진 운명이라고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신작이 완성됐다. 어릴 때 다리를 크게 다쳐서 수렵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기술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뒤쳐진 열네 살 소년 아틀라틀이 지혜와 끈기, 용맹한 도전 정신으로 욕심과 두려움에 눈이 먼 어른들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이 야생 동물들이 인간과 어우러지는 방대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진다.

새로 떠올린 무기를 시험해보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혼자 산책을 나갔던 날, 아틀라틀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 절벽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이 완전히 뒤틀렸지만 목숨은 건졌던 첫 번째 고비와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 부족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인 검치 호랑이와 마주친 것이다. 왼쪽 다리에겐 체중을 전혀 실을 수가 없어서 늘 절뚝거리야 하는 아틀라틀은 이제 몇 주 뒤면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 남성들이 다 어엿한 사냥꾼으로 첫 사냥에 나설 때 노인들, 치욕스럽게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 처지였다. 대대로 그 누구와 맞붙어도 진 적이 없는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부족장의 자리에 오른 아버지조차 그런 자신을 은근히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겨우 몇 개월 앞서 태어난 사촌 파우와우는 아예 대놓고 아틀라틀을 비난했다. 다리를 저는 부족민은 부족에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비웃고 면박을 주는 파우와우가 사냥까지 시작하면 얼마나 더 거들먹거릴까?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게다가 지난 달에 열린 부족 전체 모임에서 아틀라틀의 부족에 새로 들어온 아름다운 소녀 타키에게 파우와우도 마음을 두고 있기에 더 마음이 조급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사냥꾼으로 당당히 한 몫 하려면, 그리고 타키에게 가장 멋진 새 깃털을 가져다 주려면 어떻게든 사냥 기술을 익혀야 했다. 남들보다 불리한 신체조건을 이겨내고 창을 더 멀리, 힘차게 던질 방법을 궁리하던 아틀라틀은 굽직한 나뭇가지 사이에 천을 고정시키고 그 탄력으로 창을 날리면 훨씬 더 멀리,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북의 골짜기'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한 번 시험해볼 생각이었다. 기다란 칼처럼 아래로 뺨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검치 호랑이 한 마리가 코 앞에 나타나는 줄도 모르고 새 무기를 만드느라 혼이 나가 있던 아틀라틀은 이미 몇 발자국 앞까지 다가

은 호랑이를 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틀라틀 바로 뒤에 있는 풀숲에서 새끼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새끼 호랑이 덕분에 거대한 바위 만한 엄마 호랑이의 관심에서 겨우 벗어난 아틀라틀이 서둘러 달아나려던 찰나, 이리떼가 나타나 호랑이들을 에워싼다. 살아남기 위한 맹수들의 무서운 싸움을 나무 위에서 지켜보던 아틀라틀은 네 마리나 되는 이리를 전부 해치웠지만 그 사이 어미 호랑이는 치명상을 입고 죽어간다. 그런데 엄마를 잃은 새끼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부족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아틀라틀을 쫓아온다. 검치 호랑이는 부족 캠프에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엄한 규칙이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새끼를 외면할 수 없었던 아틀라틀은 옷 속에 숨겨 마을까지 데려온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아틀라틀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파우와우는 규칙을 어긴 데다 부족이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아틀라틀을 이 참에 완전히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술을 믿는 부족민들이 위험한 맹수를 들인 건 단순 위반이 아니라 부족에 해로운 일을 끌어들이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불안해하고 함께 비난하는 가운데,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온다. 골짜기를 흐르는 강이 점점 불어나 대형 홍수가 임박해진 것이다. ‘거북의 골짜기’는 다른 자연신에게 패배한 거북신이 바닥 없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알려진 그곳 강물 속에 내던져진 곳으로 알려졌다. 거북 신이 다시 깨어나면 패배의 모멸감을 설욕하기 위해 강 아래에서 주변의 모든 물을 끌어 모아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설은 대대로 부족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야기 중 하나였다. 아틀라틀이 금지된 동물을 들여 신이 노했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나오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미처 도망갈 틈도 없이 순식간에 넘쳐 흐른 강물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 산 전체가 쓰러지는 듯한 거대한 물살이 지나가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틀라틀 곁에는 아버지와 새끼 호랑이만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타키와 부족민들이 왜 이런 참사를 당해야 하는지 비통함과 분노에 떨던 아틀라틀은 정말 조상들이 경고했던 거북신의 분노가 이런 비극을 만든 것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마음먹는다. ‘신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골짜기 너머의 땅, 아직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깨어난 거북 신과 정면으로 맞서 따지고 싶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뿐이고 그냥 두면 굶어 죽거나 잡아 먹힐 게 뻔한 새끼 동물을 구해줬을 뿐인데 홍수를 일으키고 부족 전체를 몰살시켰다고 비난하던 사람들, 그 부당하고 억울한 틀에 갇혀서 겨우 붙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도 않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진 아틀라틀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새로 만든 무기만 들고 거침없이 나아간다. 아들의 남다른 용맹함과 울분을 마침내 이해한 아버지도 그 위험한 모험에 동참하고, 두 사람은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골짜기 너머에서 이후 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독특한 소재와 배경이 매력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시그문드 브라우어(Sigmund Brouwer)는 현재까지 발표한 책이 총 4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다. YA 소설 『Dead Man's Switch』는 2015년 아서 엘리스 어워드 최우수 YA 범죄 소설상을 수상하였으며 존 스프레이 미스터리 어워드 결승에 올랐다. 그 외에도 『Moon Mission』, 『Thief of Glory』 등을 썼다.